

9/21(화)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3
데살로니가후서 1:1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선 6-10절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가지 영적 전쟁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그의 백성/자녀/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롬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되거나 하나님의 실수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마 10:29-31,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같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고 여전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첫번째 기도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11절상,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불모지 즉,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을 이전 환경과 비교하거나 또 예전 상황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불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과 ‘순종’입니다(고전 4:1-2,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두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11절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도적적인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인 소명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균형잡힌 신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살아서 활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전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살전 1: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두 번째 서신서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강조한 이유는 신자의 믿음이 언제든지 정체되어서는 안되고 계속해서 살아 있는 믿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그에 걸맞는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동시에 살아 있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재림 때에는 필요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재림 때에 그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요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날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자들도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의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영광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웨민 소요리문답 1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임의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 어린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 주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열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하이티를 위한 기도:** 하이티에서는 2010 년 1 월에 발생한 진도 7.0 의 강진으로 인해 20 만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최근, 2021 년 8 월에도 진도 7.2 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하여 최소 2,189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옥 5 만 3000 여 채가 완전히 파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공공기관의 파괴, 폭력 조직의 활개 등으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 사회가 아이티에 대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세계 교회가 협력하여 아이티 교회와 신자들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하자. 오늘은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대만 정안진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자.